



## 코람뉴스 (2021 년 9 월)



### 생물학박사 최재천 박사의 기후변화전문가 과정 강의중 (코로나 19 발생원인)

앞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with corona virus, 위드 코로나) 살아가야 하는 시대에 있으며, 백신접종이 진행중인 상황으로, 2020 년 1 월

이후로 우리의 삶은 정체되어버린듯 하다.

학자들에 의하면,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박쥐"에게서부터 "천산갑"이라는 동물을 거쳐 인간에게 옮겨왔다고 한다. 그 과정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100 년간 중국 윈난성 남부를 비롯한 남아시아 지역 기후 변화로 바이러스를 품은 박쥐가 살기 좋은 환경으로 바뀌었고, 야생동물 포획과 거래가 늘면서 사람을 감염시키는 치명적인 바이러스 등장으로 이어졌다는 분석 결과다.

어느날 여느날과 다름없이 중국 우한 시장으로 출근하는 한 남자,  
그의 직업은 천산갑이라는 포유류를 도축하는 일이다.

천산갑이라는 포유류는 신기하게도 털이 비늘로 진화한 동물이다. 위의 사진이 바로 '천산갑'이라는 동물이다. 천산갑을 식용으로 잡기 위해 비늘을 하나씩 뽑다보니,  
그 진액이 손에 묻고, 손을 제대로 씻지 않는 남자는, 그 손으로 일상생활을 하고,  
누군가를 만나고, 우한시장에 여행 온 이탈리아인, 한국 대구에서 온 사람 또는 세계인들에게  
코로나바이러스를 옮기게 된다.

그리하여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세계로 전파하게 되었다.

그러면 천산갑이라는 동물은 어떤 동물인가? (위의 사진이 천산갑이다.)

멸종위기 상태였던 천산갑이 코로나 19 중간숙주로 알려지면서, 더욱 알려지게 된 천산갑은,  
빈치목에 속하는 포유류의 동물이다.

천산갑류는 몸에 큰 비늘이 있으며,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열대 지역에 분포한다.

처음엔 털이었다가 비늘로 바뀐 천산갑은 결국 자신의 몸을 보고하기 위해서 좀더 단단한 비늘로 바뀌가며 살려고 했던 몸부림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도 든다.

이러한 천산갑의 비늘은 중국에서 한약재로 쓰고 있으며, 비늘을 이렇게 한약재로 뽑아서 쓰고,  
비늘이 뽑힌 천산갑들은 식용으로도 사용된다고 한다.

\*\*\*\*\* 9월 생신을 축하합니다. \*\*\*\*\*  
김상주님 (26 일, 307 호), 모스 행선님 (11 일, 102 호),  
박린다님 (2 일, 503 호), 윤규열님 (12 일, 410 호)



환영합니다..

407 호에는 최종길님이 9 일 날자로 이사를 오십니다.  
우리 모두 따뜻한 마음으로 맞이해요!!

### 알림

♣ 9 월 8 일에는 발닥터인 김선웅님이 코람에 방문하는 날입니다. 치료가 필요한 분들은 2 시 30 분까지 1 층으로 내려오세요.

♣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3 차 백신에 대한 CDC (질병통제 센터) 발표에 의하면, 2 차 백신을 맞은 8 개월 뒤에 3 차 접종을 권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주치의와 상담하여,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인 1, 2 차를 본인이 맞은 백신으로 3 차도 맞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코람아파트에서는 2 차 백신 행사를 모더나로 4 월 8 일에 하였으므로 8 개월 뒤인 12 월에 계획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 중, 델타변이라고 하는 것이 미 전역에 퍼지고 있어요. 내 집안을 제외한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필수로 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9 월 21 일은 우리의 명절인 추석 한가위가 있어요.. 특히나 올해에는 한국으로 날아갈 수도 없으며, 이곳으로 방문도 힘들지만, 목소리만이라도 고향의 가족 & 친구들에게 안부전화 해볼까요??

♣ 겨울을 대비한 에너지보조신청은 9 월 중순에 할 예정입니다. 8 월에 받은 전기요금 고지서를 서비스코디네이터에 보여주세요. 또한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사무실에 방문해주세요.

관리실에서 알립니다.

♥ 많은 주민분들이 애용하시는 워커 (walker) 라는 것은 혼자 걸으며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남이 앞에서 끌거나, 뒤에서 밀게되면 균형을 잃고 넘어지기 쉬워요. 그러면 뼈를 다칠 경우도 있겠지요? 양로원 입소의 80%는 넘어져 고관절이나 뼈가 부러져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코람 주민 한분 한분 모두는 신체적으로 약한 그룹에 속해 있으므로, 많은 주의를 해주세요.

♥ 필요한 경우마다 관리실에서 나가는 Notice (메세지) 는 주의깊게 읽어보시고, 읽은 것에 대한 싸인을 요구할 경우에는 꼭 싸인을 하여 관리실에 반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유머 한마디:

하늘에 제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거짓에 막말을 많이 하고 살았으면 입을  
마스크로 틀어막고 살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했으면 거리를 두고 살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손으로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어딜가나  
손씻고 소독하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열 올리고 살았기에  
가는 곳마다 체온을 체크하고 살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비밀스럽게 다녔으면  
가는 곳마다 연락처를 적으라 하시겠습니까!

반성하며 잘 살겠습니다.  
노여움 거두시고,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세상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대로 살다간 뽕~돌겠습니다.**



## SUDOKU game (수도쿠 게임)

4		1	
	1		3

4	3	1	2
1	2	3	4
3	4	2	1
2	1	4	3

↑ ↑ ↑ 가로, 세로 사각 등 4 칸에 1, 2, 3, 4 를 찾아주세요.

# Check Out Our Art!

By Mike DeSantis



In this big picture, find the swim fin, pencil, comb, saltshaker, needle, book, nail, artist's brush, duck, mug, banana, crown, musical note, saxophone,



**숨은 그림 찾기:** swim fin (수영 오리발), comb (머리빗), needle (바늘), pencil (연필), nail (못), artist's brush (예술가의 붓), saltshaker (소금 뿌리기), mug (머그잔), book (책), duck (오리), banana (바나나), musical note (음표), crown (왕관), crescent moon (초승달), candle (촛불), saxophone (색스폰), spoon (스푼)

## 춘향전 바로 알기 시리즈 5 : 정보제공

### 민산 김정교님 (코람 312 호)

4 회에서 이어집니다.



다음날 본부에 가보니 수연이 열리므로 어사는 걸인 차림으로 말석에 앉는다. 일련의 시를 짓고는 암행어서 출두를 하고 자기 (坐起) 한다. 어사는

춘향이 이름을 기적 (妓籍) 에서 빼고 같이 한양으로 간다. 왕이 춘향에게 정렬부인의 교지를 내리고 어사 이몽룡은 귀별녀 (貴閥女)에게 장가들고 후에 영의정이 된다. 칠언장시 2800 자로 창작된 이 시는 한시본이므로 광대의 판소리가 얼마나 충실히 옮겨 놓았는가 고개를 갸우뚱하게 의심이 가지만 267 년전 영조 30 년에 춘향전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자료라는데 의미가 있다. 유진한은 당시 몹시 천대하고 멸시하던 하층계급인 관대들의 소리를 시로 옮겼다고 이웃 양반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기도 하였다.

구비 전승되어 오던 판소리 춘향가를 부인하고 각색, 거기다가 갖은 아름다운 사설과 운율을 섞어 윤색한 춘향전을 남창, 여창, 동창으로 따로 만들고, 처음으로 여자가 판소리를 하게 하고, 어린이도 하게끔 하였다. 특히 희곡화 동시에 가극화로 창극화로 조선 구극 (舊劇) 의 문을 열었다.

상층 취향의 전아 (典雅) 수직적인 말투를 많이 사용했다. 상하의 관심을 아우르면서 신분을 넘어선 민족문화로 성장하는데 사설문학과 판소리 문화의 향상, 정착을 기리는 위대한 업적을 남긴 신재효 (申在孝, 1812 년 순조 12 년~1884 년 고종 21 년)자는 백원 (百源), 호는 동리 (桐里), 또는 호장 (戶長)의 등장은 단연 민족문학의 역사적인 일이었다. 아버지 신광흠 (申光洽, 1771 년~1844 년) 경기도 출신으로 한성부에서 경주인 (京主人) 하던 선대의 인연으로 전라도 고창군에 정착 관약국을 경영하며 재산을 모았다.

외아들로 출생한 신재효는 중인 신분이었으나, 부친의 슬하에서 경서 (經書) 백가 (百家) 의 외서 등을 열심히 공부했다. 특히 우리나라 음률 창곡에 정통하였다. 그는 아버지가 마련한 기반을 바탕으로 이방으로 잠시 있으면서, 앞으로 할 일을 확립하면서 스스로 호장 (戶長) 이라 하였다.

전재산을 상속받아 넉넉해진 1850 년 (철종 1 년)무렵 40 세까지는 집안 일에 종사하다가 이후에는 판소리 연구와 창연구, 창극연구에 전념하기 위해 4000 평 대지에 동리정사를 건립하고 광대소리학교를 세워 당시 이름난 명창들을 문하에 두고 수습 창기를 교육. 당시 몹시 천대받고 멸시받던 가난한 광대들을 후원하며, 그들과 숙식을 같이 하며 자연스럽게 판소리 교육, 연구수련, 공연 평가하는 판소리 공동체를 만들었다.

구비 전승되던 판소리 열둘 마당에서 여섯마당으로 집대성 했다. 서민 판소리의 문학적 이론가요, 연출가요, 광대의 지휘자로 평생의 대업을 이루었다. 광대가에서 첫째로는 득음 (得音), 둘째로는 사설 (辭說), 셋째로는 인물 (人物), 넷째에 너름새 (발림)이라는 가사를 쓰고 4 대 범례를 마련했다.

1860년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군이 전투에 패하여 퇴각하자 전승을 축하하는 소리 (괘씸한 서양 되놈)을 작곡했다. 1876년 (고종 13년) 대홍작이 들었을때 굶주리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사재로 구호활동을 했다. 이 공로로 통정대부 (정 3품)가 되고 절충장군이 되었다. 1879년 경복궁 증건에 위납전 (願納錢)을 낸 포상으로 가선대부 (종 2품)로 승품되고, 호조판관으로 동지중추부사 (同知中樞府事)를 겸직했고, 이로써 신분의 상승이 이루어졌고, 양반 반열에 올랐다. 고종때는 음서로 오위장 (五緯將)을 지냈으며, 당시까지만 해도 판소리는 기생이나 광대가 아무 계통없이 불러 왔는데, 이를 통일하여 체계화하고 독특한 창의로 판소리 사설 문학을 이루어 모두 부르게 하였다. 경복궁 증건 축하연에 처음으로 길러낸 최초의 여자 명창 진채선 (陳彩仙)을 갓쓰고 도포입고 남장하여 대원군 앞에서 성조가 (成造歌)와 방아타령을 부르게 했는데, 운현궁에 들어가 돌아오지 않아 (도리화가, 桃李花歌)를 작고, 언제오나 그리워하다 세상을 떠났다.

